



년중계속사업

북한 어린이 돕기

통일옥수수 심기 국민운동



1. 사업의 취지

범국민적인 통일참여운동 일환으로, 통일 한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체험적인 통일교육을 위해, 북한 어린이들을 돕기 위한 통일옥수수 재배운동을 시작하였다. 학교별로 인근 텃밭을 활용하여 학생들 자력으로 통일옥수수를 심고 가꾸어, 얻어지는 수익으로 북한 결식어린이들을 돕는다는 취지다.

지난 2015년에 첫 사업을 진행하며, 통일옥수수 종자를 공급한 옥수수재단의 김순권 박사와 본 사업에 적극 참여한 서서울과학고등학교 전승환 교감 등 일차 참여자들이, 사업을 시작하는 첫 해이므로 많은 학교가 참여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시험적으로 옥수수를 재배해 보자는 제안에 따라 안산에 위치한 진흥초등학교(교장 정경동)를 비롯한 10개 학교에서 첫 사업을 진행하여 수확하게 된 옥수수를 주변의 많은 학생들과 나누면서 통일에 대한 다양한 의견과 생각들을 나누는 소통의 장을 만들었다. 따라서 본 협회는 본 운동을 장기적인 국민통일운동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해 가고자 한다.

2. 사업의 개요

사업명칭: 북한 어린이 돕기 위한, 통일옥수수 심기 국민운동

행사기간: 년중 계속사업

주 관: 사단법인 우리민족교류협회

진행방법: 초,중,고등학교와 기타 교육기관, 종교기관, 군부대 및 일단 시민단체 등 활용 가능한 텃밭을 보유하고 있는 기관들과 협력하여 통일옥수수 재배

협 찬: 국제옥수수재단

후원(예정): 국제라이온스협회, 국민일보, 극동방송, 전국기독교총연합회, 한국음식업중앙회,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미주한인총연합회





(사)우리민족교류협회 송기학 이사장(사진 좌)과 국제옥수수재단 김순권 이사장(사진 우)이 통일옥수수심기 국민운동 업무협약서를 교환하고 있다.



수확한 옥수수를 선별하는 서서울생활과학고등학교 텃밭동아리 학생들



고양교육지원청이 지난2016년 10월 1일부터 3일까지 고양호수공원 주제광장에서 열린 도시농업한마당 축제에서 우리민족교류협회, 국제옥수수재단과 함께 ‘통일옥수수 가꾸기를 통한 평화통일교육 전시회’를 운영했다. 이번 통일옥수수 가꾸기를 통한 평화통일교육 전시회는 고양교육지원청의 역점사업인 ‘평화 고양교육 통일 관심 더하기’의 활동 중 하나로 통일 옥수수 재배를 통해 평화통일의 의지와 감수성을 기르기 위한 사업으로 관내 유, 초, 중, 고등학교 81개교가 참가했다.

체험 활동으로는 우리민족교류협회(이사장 송기학)가 국제옥수수재단(이사장 김순권)과 더불어, 미래 통일한국의 주역이 될 청소년들의 통일체험과 교육차원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일옥수수 가꾸기 국민운동 일환으로 진행된 행사에는, 참가학교 재학생들이 자신들의 학교 텃밭에 재배한 옥수수를 이용하여 찐 옥수수, 빵튀기, 조청 등의 2차 가공품을 제조하여 이를 행사장의 모든 시민들과 더불어 함께 나누며 다채롭게 펼쳐졌다. 특히 고양고등학교에서는 재배한 옥수수를 이용한 옥수수 조청과 우리민족교류협회의 찐 옥수수와 빵튀기 등의 시식 행사는 많은 시민들과 관람객의 큰 호응을 받았다.

우리민족교류협회 홍석준 사무국장은 “학생들이 통일 옥수수 재배하는 과정에서 평화통일을 생각하고 시민들과 함께하는 체험행사를 가진 것은 매우 의미 있는 일”이라며 “이번 통일 옥수수 가꾸기를 통해 학생들이 평화 통일을 보다 피부에 닿게 함께 생각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고양교육지원청은 지역사회와 연계한 체험중심의 평화통일교육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오감만족의 통일체험과 평화통일 감수성을 더욱 키워나갈 예정이다.